

오바댜 개관

1. 개요

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시온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.

-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(에서의 후손)이었지만, 유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 조롱하고 침탈하였습니다.
 -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과 배신에 대한 심판, 그리고 시온의 최종적 회복과 여호와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.
-

2. 저작 연대

- 정확한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, 다음 두 견해가 대표적입니다:

① 전통적 입장 (주전 586년 이후)

-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직후, 에돔이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약탈한 사건을 배경으로 함 → 주전 586년 직후, 바벨론 포로기 초기로 보는 견해 (다수의 보수적 학자들 지지)

② 남왕국 유다 초기 (여호사밧 혹은 요람 시대)

- 에돔과의 갈등이 심했던 주전 850년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

-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대체로 주전 586년 전후의 시기를 택합니다.

3. 저자

- “오바댜(Obadiah)”라는 이름은 “여호와와 종” 또는 “여호와께 속한 자”를 뜻합니다.
- 구약에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여러 명 있었지만, 본서의 저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그러나 본문 자체가 선지자의 인격과 사명을 반영한 예언으로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.

4. 기록 목적

- 형제 민족 에돔의 교만과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
-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의 잘잘못에 대해 반드시 판결하심을 강조
- 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시온의 회복과 여호와의 나라가 확립될 것임을 소망으로 증거

5. 단락 구분

오바댜서는 1 장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, 내용상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:

구분	범위
1-9절	에돔의 교만에 대한 심판 선언
(그들의 요새, 지혜, 동맹 - 모두 무너짐)	
10-14절	유다 멸망 시 에돔의 죄 구체화
(침입, 약탈, 포로 인도 - 형제 민족에 대한 배신)	
15-21절	여호와와 날과 회복의 소망
(열방에 대한 보응, 시온의 회복, 여호와와 나라 도래)	

6. 중심 메시지

“여호와와 그의 날이 만국을 향하여 가까웠나니...” (욥 1:15)

“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.”
(욥 1:21)

오바댜의 중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:

-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아진다.
- 하나님은 형제의 배신, 정의의 왜곡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.
- 심판이 끝이 아니라, 시온은 회복되고 여호와와 그의 나라가 세워진다.

7. 신학적 이슈

① 형제의 죄와 언약적 책임

-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민족(예서의 후손)이지만, 환난 때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고 조롱함

→ 언약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죄로, 단순한 국제 전쟁이 아닌 언약적 배신의 심판이라는 깊은 신학을 품음

② “여호와와 그의 날” 개념

- “여호와와 그의 날”이 에돔만이 아닌 만국을 향한 심판의 날임을 강조
- 이는 이후 예언서에서 보편적 종말론과 심판 신학의 기반이 됩니다

③ 시온의 회복과 종말론적 왕국

- 시온이 회복되고 “여호와와 그의 나라가 도래한다”는 종말론적 선언은 다윗 언약과 메시아 왕국의 성취를 내다보는 구조입니다.
-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오바다 해석

①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

- 오바다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역사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며,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정론을 강하게 드러냅니다.
- 개혁주의는 모든 민족과 시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며, 오바다의 국제적 심판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교리와 밀접히 연결됩니다.

② 언약 신학과 배신의 죄

- 에돔의 죄는 단지 침략이 아니라 언약적 형제됨을 저버린 죄입니다.
- 이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, 충성, 신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며, 교회론적 적용에서도 공동체적 윤리를 요청합니다.

③ 종말론적 왕국 신학

- 마지막 절(욥 1:21)은 “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”는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합니다.
- 이는 개혁주의의 그리스도 중심 종말론, 하나님 나라 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.

④ 예수 그리스도와 오바다

- 오바다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:

“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,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.” (눅 14:11)

- 그리스도는 에서처럼 교만하게 군림하지 않으시고,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중보자이시며, 무너진 시온을 다시 세우신 완전한 구속자이십니다.